



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
Washington, D.C. Established since 1980
www.naks.org

재미한국학교협의회 34 회 정기총회 회의록

- 일시: 2016 년 7 월 16 일(토) 오후 3 시부터 5 시 30 분
- 장소: Telluride Room,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
[3801 Quebec Street, Denver, Colorado 80207, USA 303-399-7500]
- 사회: 총회장 최미영, 기록: 사무총장 오정선미

1. 정기총회 성원 파악

- 참가자 149 명, 참관인 3 명으로 정기총회가 성원 되었음을 알리다. (오정선미)

2. 개회 선언

- 최미영 총회장이 사회를 맡아 2016 년 7 월 16 일 토요일 오후 3 시 10 분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34 회 총회개회 선언을 하다.

3. 회순 채택

- 사회자가 회원들에게 1~16 번까지 항목으로 회순을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물었고 방정웅 회원 동의, 홍태명 회원의 재청이 있었다. 회원 모두가 '네'로 동의하였기에 회순이 채택되다.

4. 33 차 정기총회 회의록 낭독 및 통과

- 최미영 총회장이 회의록은 학술대회 강의를 56~58 쪽에 있으니 (제 33 회 총회에서 회의록을 미리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은 대로 총회록을 지난 6 월 29 일에 강의록과 함께 웹사이트에 올려서 2 주 이상 광고하였음.) 낭독 없이 그대로 받기를 요청하다. 이에 학술대회 강의록에 실린 내용으로 받기로 하고 통과하다. (동의: 이상오, 재청: 이은애)

5. 협의회 사업 보고

- 최미영 총회장이 학술대회 프로그램 60-64 쪽에 있는 협의회 사업을 보고하다.
- 사업 보고서 중에 '미팅'이라는 말과 '회의'라는 말이 혼용되었는데 '회의'라는 말로 쓰자는 홍태명 회원의 발언이 있었고 이에 건의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웹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사업보고를 받기로 하고 통과하다. (동의: 정광현, 재청: 진주현)

6. 2014-2015 회계 연도 감사 보고

- 심운섭 감사가 참석하지 못한 홍승희 감사를 대신하여 2014.5.1~2015.8.31 일까지의 행정감사 및 재정감사 내용을 보고하다. (감사 참가자: 장동구, 최미영, 유미순 재무)
- 감사 보고: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대외서류가 잘 보관되어 있다. 재정장부, 원장, 재정보고서가 잘 정리되어 있다.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은행장부와 잔액 (\$146,552.99)이 일치하였다. 17 대가 효과적으로 재정을 잘 운영하였고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다. (첨부 문서 1 참조)
- 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고 통과하다. (동의: 원혜경, 재청: 설영숙)

7. 2014-2015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 (첨부 문서 2 참조)

- 유미순 재무가 2014-2015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을 보고하다.
- 질문 사항: 결산 보고 후에 2016 년 6 월까지의 지출 및 결산보고가 통상적이라 생각하는데 왜 작년 것을 보고하는지 궁금하다는 김윤희 회원의 질문이 있었다. → 중간감사는 2016. 5. 31 까지 하지만 결산보고의 경우 정기 총회가 일 년에 한 번이 있고 결산기간이 8 월 31 이라 감사보고를 다음 해에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. (심운섭 감사) → 중간결산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을 정기 총회때 회원들에게도 알려져 궁금증을 해결하면 좋겠다. (홍태명 회원) → 이 내용에 대해 동의와 재청을 하시면 다음 총회 때는 일차감사 (중간감사) 부분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다. (최미영 총회장) → 중간감사 결과보고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. 중간보고를 지금 하면 된다. (이광호 회원) → 이번에 임시감사 (중간재무 보고서)를 지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2015 년 8 월 9 월 1 일부터 2016 년 5 월 31 일까지의 재무보고를 잠시 뒤에 하기로 하다.
- 2014-2015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는 김윤희 회원의 동의, 윤길호 회원의 재청이 있었고 모두 '예'로 답함으로써 통과되다.
- 2015 년 8 월 9 월 1 일부터 2016 년 5 월 31 일까지의 1 차 감사를 받은 재정에 관한 수입 및 지출 결산을 보고하다. 17 대 집행부에서 재정이 남을 경우 사용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이에 사회자가 재정이 남으면 18 대에 넘겨드리고 더 많이 남으면 마이클 양 기금으로도 넣으려고 한다. 이 내용은 보고 사항이므로 동의와 재청없이 보고로 그치겠다고 말하다. (최미영 총회장)

8. 2016~2017 회계 연도 사업계획 심의 및 통과

- 최미영 총회장이 2016-2017 회계 연도(2016.9.1~2017. 8.31) 사업계획안을 발표하다. (첨부 문서 3 참조)
- 사업 계획안은 18 대 집행부에서 수정이 가능함을 알리다.
- 2016-2017 회계 연도 사업계획안을 받기로 하고 통과하다. (동의: 방정웅, 재청: 소선주)

9. 2016~2017 회계 연도 수입 지출 예산안 심의 및 통과 (첨부 문서 4 참조)

- 최미영 총회장이 2016-2017 회계 연도 수입 지출 예산안을 발표하다.
- 2016-2017 회계 연도 수입 지출 예산안도 18 대 집행부에서 수정이 가능함을 알리다.
- 제안: \$33,5000 규모의 예산에 이사회비 전체 비용이 만불 미만이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. 이사회가 분발해 달라는 정광현 회원의 발언이 있었다.
- 2016~2017 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통과하다. (동의: 송지은 재청: 한순용)

10. 이사회 보고

- 장동구 이사장이 아래의 이사회 내용을 보고하다.
 - 1) 차세대 네트워크와 교재발간을 위해 2015 년 12 월에 워싱턴 지역에서 갈라를 개최하였고

모금액 \$19,550.72 전액을 SAT 한국어 문제집 발간에 썼다.

- 2) 선출이사 6 명이 선출되었다. (추성희, 황희연, 김미경, 김용순, 고은자, 황현주)
- 3) 회장, 부회장 선출에 관해서는 총회장 후보 2 명(심운섭, 이승민)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올라와 있다. 그리고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3 명의 부회장을 선출해서 오늘 총회에서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오정선미, 장은영 2 명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사회에서 1 명이 개인적인 사연으로 기권하였다. 남은 1 명의 부회장 선출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선출한다는 내용을 오늘 총회에서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.
- 4) 고은자 이사가 13 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.

11.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헌장 개정안 통과

- 최미영 총회장이 회칙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제출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결의한 5 가지 헌장 개정안 내용을 총회에서 보고하다. (첨부 문서 5 참고)
- 헌장 개정안 보고 사항에 대한 질문: 임원의 자격에서 총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라고 되어있는데 선출이사나 이사장의 조건도 같으면 힘들다. 이사회 구성과 임원회 구성은 다른 성격으로 가야 할 것 같다. (정광현) → 총회장 후보를 이사회에서 2 명을 추천에서 올리고 만약에 플로어에서 후보자 1 명을 올릴 경우 3 명의 후보자가 나온다. 이 경우 재투표를 한다는 부분이 첨가되어야 한다. (강성방) → “회원학교 대표자 2 명은 교장과 교감으로 한다”로 되어있는데 미국법에 따르면 이사장이 학교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. 이사회가 있는 학교의 경우, 이사장도 학교대표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. 유능한 이사를 모셔서 2 세 교육을 위한 모금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(이상오) →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사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된 부분으로 이사회에서 발언하셨어야 할 내용을 총회에서 발언 하신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생각한다. 하지만 이 부분은 동의 재청에 의해 표결하면 된다고 본다. (최미영 총회장) → 총회장 후보가 플로어에서 나와 모두 3 명이 되었을 경우 재투표 또는 재재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가능하다. 그리고 명예이사, 자문이사 문제는 현회칙에 해결 방안이 다 나와 있다. 현재는 교장, 교감에게 힘을 주려고 실행하고 있다. 오늘은 토론할 시간이 없다. 원하시면 내년에 회칙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의논하면 된다. (이광호) → 이 자리는 자격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을 총회에서 인준받는 자리이므로 이사회 결정에 관하여 동의 재청해 주시기를 바란다. (최미영)
- 총회에 상정된 5 가지 헌장 개정안이 통과되다. (동의: 박종권, 재청: 설영숙 회원)
- 1 명의 부회장 선출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선출하기를 총회에서 결의한다는 안건을 받기로 하다. (동의: 방정웅, 재청: 윤정수)

12. 18 대 총회장 선출

- 성원 149 명 (참관 3 명)
- 총회장 후보로 심운섭, 이승민 2 명이 입후보했고 이승민 후보가 총회장에 선출되다. 심운섭 (39 표), 이승민 (112 표) 기권 (1 표)

13. 제 35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발표

- 2017 년 8 월에 애틀랜타(동남부지역)에서 제 35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있음을 알리다.

- 선우인호 동남부지역 회장이 메리어트 마키스 호텔 (Atlanta Marriott Marquis)을 소개하고 공항에서 전철을 한 번만 타면 호텔에 도착할 수 있음을 홍보하다.

14. 제 36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선정 보고

- 윤현주 중서부지역 회장이 2018년에는 시카고에서 제 36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있음을 알리다.

15. 기타 안건

- 표준평가문항집 책을 받기를 원하는 교사 분들이 많이 계셨으므로 재정이 허락하면 책을 더 인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. 동시에 pdf 문서를 회원자격이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웹에 올릴 것이다. 재인쇄에 관해서는 지역협회장님들에게 연결하여 일을 진행하겠다.(최미영 총회장) →회원님들이 모두 좋다고 하심
- 김인숙 부회장이 SAT 한국어 문제집 주문 및 배포에 대해 알리다. → 주문 마감은 7 월 31 일이며 8 월 31 일에 17 대 집행부의 은행 계정 구좌를 달게 되므로 주문하신 분들은 그 이전에 최대한 빨리 책값을 지불하시길 바란다. 모자라는 부분은 18 대에서 주문하시면 된다.
- 남일 회원의 청에 따라 회칙 개정안 동의를 다시 한 번 묻다. 모든 회원이 회칙 개정안에 관하여 '예'로 대답하였고 '아니오'라고 대답한 회원은 없었으므로 회칙 개정이 완료되었음을 재확인하다.

16. 폐회

- 최미영 총회장이 오후 5 시 10 분에 폐회를 선언하다. (동의: 오정선미, 재청: 명계웅)